▶▶ 매일 INDEX

3면
통일부 "北, 개성공단 내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전주매일
www.jjmaeil.com

2020년 6월 17일 수요일 (윤 4월 26일) 제2558호 대표전화(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곽 경 문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방통위 시청자미디어센터 전주에 들어선다

전북도, 사업유치 성공… 지상4층 규모 2024년 개관
다양한 계층대상 맞춤형 교육·창작 프로그램 운영
'한국판 뉴딜' 언택트 미디어 생태계 구축 기대감

전북도가 방통위 '시청자미디어센터 구축' 사업 유치에 성공했다.

도는 지난 12일 방송통신위원회 주관 '시청자미디어센터 구축 도시 선정 심사위원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사업계획서 발표, 질의응답 등을 거쳐 도의 사업계획이 최종 '적격' 평가를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선정심사에서는 시청자미디어센터 예정지와 인접하고 있는 전라북도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 교육기관, 방송사 등과 미디어 사업 활성화를 위한 협력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으로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다.

시청자미디어센터는 방통위 산하 시청자 시청자미디어재단에서 운영하는 국가기관으로 전북시청자미디어센터는 전주시 만성지구(개발부지) 첨단산업지원용지에 전체 면적 3498㎡의 지하1층~지상4층 규모로 2024년 개관을 목표로 건립된다.

또한 센터 건립비용은 전북도가 부담하고, 방송시설과 장비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운영비는 방송통신위원회와 전북도가 분담하게 된다.

아울러 센터에서는 방송프로그램 기획, 제작 등 방송장비 및 스튜디오 체험을 통해 미디어에 대한 흥미 유발과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 장애인, 고령자, 다문화가정, 농어민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미디어교육 및 창작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더불어 도민에게 방송장비와 방송시설을 무상 대여, 스튜디오 등 시설물 대관으로 공유·공존·소통 역할 기능도 수행하게 된다.

전북도는 센터 건립으로 도민들의 미디어 접근성 향상과 지역 언론 및 시민미디어센터와 연계한 전북만의 특색 있는 한국판 뉴딜 언택트 미디어 생태계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어 미디어교육과 체험에 대한 도민들의 갈증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곽승기 전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센터 유치로 도민 미디어 역량 강화 및 전북 미디어 산업이 확대될 것이다"며 "도내 1인미디어 크리에이터 육성과 시·군 영상미디어센터 등 인프라 구축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전북 유치에 대한 기쁨을 전했다.

/유호상 기자

'그늘에서 더위 피하며 담소 나누는 시민들' 연일 무더위가 기승을 부린 16일 전주덕진공원을 찾은 시민들이 나무 그늘에서 더위를 피하고 있다.

검정고시 합격자 발표

전북도교육청은 지난 5월 23일 실시된 2020학년도 제1회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 합격자를 도교육청 홈페이지/알림마당/고시·공고란에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험은 초졸 52명, 중졸 153명, 고졸 478명이 각각 합격했다. 합격률은 초졸 67.53%, 중졸 80.10%, 고졸 70.61%를 보였다. 이번 시험의 최고령 합격자는 73세로 고졸 합격자다.

합격증서는 오는 30일까지 도교육청 1층 고객지원실에 신분증을 가져가면 수령할 수 있으며, 원서접수 시 우편수령을 신청한 사람은 우편으로 합격증서를 받아볼 수 있다.

또한 2020년도 제1회 검정고시 성적조회는 7월 3일까지 도교육청 홈페이지/알림마당/성적확인에서 확인 가능하다.

합격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등 증명서 발급이 필요한 응시자는 전국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각급 학교, 주민자치센터 무인발급기 등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장은성 기자

여름철 재난취약시설 도, 민관합동 안전점검

전북도는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각종 재난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도내 야영장, 숙박시설, 유원시설, 해수욕장 등 17개소를 선정해 17일부터 29일까지 민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점검은 피서철 행락객들이 많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난 취약분야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 전반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시설물에 대한 건축·전기·가스·소방 분야와 해당시설물 운영관련 개별법에 의한 시설기준의 적합성 및 안전수칙, 안내표지판 정비 여부 등이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실내 활동이 제약되면서 답답함을 해소하기 위해 야외 여가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생활속 거리두기 세부지침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사항 여부도 함께 점검 한다.

점검반은 도, 시군, 소방서,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17개소에 대하여 합동점검하고,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물 관련부서별로 자체 점검할 계획이다.

/유호상 기자

'복지 사각지대' 1인 자영업자 돕는다

전북도, 고용보험 30% · 산재보험 최대 50% 지원

전북도가 코로나19로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1인 자영업자의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유지, 확대하기 위해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1인 자영업자는 근로자와 유사한 지위에서 사업을 운영하지만 경기변동에 민감해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경제 위기 시 폐업 후 사회 취약계층으로 떨어질 우려가 높다.

또한 임금근로자는 고용·산재보험을 사업주와 보험료를 나눠 부담하지만 1인 자영업자는 본인이 보험료 전액을 부담해 고용·산재보험 가입이 선택사항으로 가입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아 가입률이 낮고 이로 인해 폐업과 산업재해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전북도는 근로자가 없는 1인 자영업자에 대해 기준보수등급과는 무관하게 일괄적으로 고용보험료 30%, 산재보험료 최대 50%를 지원하기로 했다.

고용보험료의 경우 기준보수 등급 1~4등급의 경우 정부의 고용보험료 지원(30~50%)에 더해 매월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최대 8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본인 부담액은 한결 가벼워질 전망이다.

도는 최근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 유도라는 정부정책 방향 등과 맞물려 이번 사업에 대해 신청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속적으로 홍보, 최대한 많은 영세 1인 자영업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1인 자영업자가 먼저 근로복지공단을 통한 보험을 가입한 후 전북도(일자리경제정책관)에 지원 신청하면 보험료 납부내역 등을 확인, 분기별로 지원한다.

또한 기존 가입자와 신규 가입자 모두 신청 가능, 올해 3월부터 이미 납부한 보험료도 소급해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6월 15일부터 지원신청을 접수, 신청서와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만 있으면 지원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은 별도 서류 제출없이 공무원이 직접 행정정보를 활용, 지원하도록 해 복잡한 절차를 없앴다.

더불어 1인 사업자의 신청 편의와 코로나 감염예방을 위해 문자, 카카오톡 오픈채팅, 이메일, 팩스 등 비대면 지원신청이 가능하도록 창구를 확대했다. 1인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전북도 홈페이지 공고문(6.12일 공고)을 참고하거나, 소상공인팀(☎063-280-3257)으로 문의하면 된다.

나석훈 도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이번 사업은 도내 1인 자영업자의 경영안정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선제적 대응 차원"이라며 "정부의 고용보험 지원과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많은 자영업자들의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코로나19 위기상황에 인건비 부담으로 직원을 해고하지 않도록 올해 한시적으로 두루누리 지원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료에 대한 사업주 부담분 전액이 지원하고 있다.

/유호상 기자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